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대통령 집권 2년 반의 치명적 한계

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배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한 협력 체제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올해 한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문 대통령에 대해 '갑박은 개', '살은 소대거리'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했다.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 데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을 감싸면서 비겁하게 인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둘째,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총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없이 진행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사업을 '도건 삼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지난 1월 24조 원 규모의 23개 국책사업의 예타를 무더기로 면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천인사나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했지

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공공기관에 정계 출신 기관장 10명 중 7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당합의 문제인 대표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부총리에게 "국가채무 40% 근거는 뭘가"라고 따졌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셋째, 정부가 잘못된 일을 제도화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이다. 가령,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법과 부정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며 정시 확대를 주문했다. 조 전 장관 개인보다는 '합법적 제도 내 불공정'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로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3.0%)보다 훨씬 낮고, 미국(2.4%)보다 뒤처진 것은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가 더 큰 요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은 그야말로 혼돈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라는 리더는 있었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야

당과 협치하는 리더십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실패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전람(萬機轉覽)'과 적기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만시탄(晩時之歎)'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80%대의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무능과 위선, 무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중책을 맡겨야 한다.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보다는 정책 확대를 주문해야 한다. 오키보다 겸손, 분열보다 통합, 합에만 의존하는 통치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치중해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 혁신적 포용 국가 → 평화 경제 → 공정 사회 구축과 같이 수시로 국가 어젠다를 바꾸기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역사로부터 평가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미래의 그림'과 상상력



김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하며 두근거리는 심장의 반응은 너무나 소중하고 기분 좋은 일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먼저 폭신한 카펫 위를 걷는다. 어느 훌륭한 호텔에 도착한 기분이다. 이러한 깔끔한 인상은 공항에 도착할 때 처음 갖게 된다. 싱가포르를 가본 사람들은 그곳이 아름다운 전원 속의 도시라는 것을 금방 느낀다. 거리는 깨끗하고, 모든 건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웬만큼 비가와도 젖지 않고 인근의 건물로 갈 수 있다. 같은 모습의 건물은 거의 없다. 숲은 거리의 어느 곳이나 무성하고 잘 가꾸어져 있으며, 적당히 곳에 아름다운 벤치들이 있다. 자연과 인공의 최대의 조화를 이뤄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 놓은 이 나라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다시 찾는 도시 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가 세워지기 전 그곳은 그저 나무 울창한 밀림이었거나 잡초가 우거진 황량한 벌판이었을지도 모른다. 싱가포르를 만든 지도자들은 지금의 싱가포르를 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그림대로 이 도시를 만들어왔

다.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저 눈앞에 놓인 현실의 일만을 하고, 경험한 일만 알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년 앞의 일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다투는 대로 앞치락뒤치락한다면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10년, 20년, 50년 후, 가능하면 100년 후까지라도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는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수조건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즉, 선명한 비전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꾸꾸는 세상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비전은 '미래의 그림'이다. 그 그림은 모두가 쉽게 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설레야 한다. 사람의 마음에 미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상상력이 라는 빛을 가져야 한다. 그 상상의 빛은 우리의 오감을 터치하여 찬란한 자연의 색상을 내야 한다. 때로는 새들의 합창과 시냇물 소리도 그릴 수 있어야 하며 더러 그 상상력은 진한 커피 향과 달콤한 초콜

릿 맛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상력으로 그려진 미래의 그림은 신비하게도 멈추지 않는 북소리가 되어 가슴을 뛰게 한다.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그런 도시 국가를 꿈꾸며 미래의 그림을 보면서 한없는 호기심과 두려움,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상상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는 것이다.

비전과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렘2:17)라는 내용이 있다. 예언, 환상, 꿈 등 비현실적인 단어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믿음으로 현실화 시킨다.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의 모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고 풍성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고

형사 조정 제도 확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회복



김용하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막힌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민주 법치 제도 하에서 모든 시시비비는 최종적으로 삼심제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판결에서 이기는 쪽은 몰라도, 적어도 지는 쪽이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은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불복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일부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정치적인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각종 재심을 통해 뒤집어 져서 국가가 배상하는 일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사회 존립의 최대 위기라 할 것이다. 근래에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열되어 검찰과 법원 주변, 또

는 거리에서 대규모의 시위로 세를 과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 법치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을 법의 잣대로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판결에서 이기는 쪽은 몰라도, 적어도 지는 쪽이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쪽은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불복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일부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정치적인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사건들이 각종 재심을 통해 뒤집어 져서 국가가 배상하는 일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사회 존립의 최대 위기라 할 것이다. 근래에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민들이 분열되어 검찰과 법원 주변, 또

형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구제와 기소 여부 결정이나 양형 감경 등으로 이우간의 극한적인 대립보다는 화해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시행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형사 조정을 통해 많은 사건들이 강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원만한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권력층에 있거나 법을 잘 아는 사회 지도층들이 오히려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배째라'는 식의 극한적인 다름을 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아픔을 인내로 치유하면서 상호간에 관용과 양보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런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보안사 5·18 사진·영상' 조속히 공개하라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보안사의 5·18 자료는 사진첩 13권과 마이크로 필름, 비디오테이프, 각종 문서 등으로 5·18 당시 보안사가 직접 확보한 국가 기록물이다. 그동안 보안사가 있던 것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서 보관해 왔는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존재가 일반에 알려졌다.

보안사의 5·18 자료는 최고의 정보기관에서 확보한 정부의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생한 사진첩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5·18의 애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조속한 공개가 필요하다.

5·18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이 5·18의 진실을 왜곡·폄해하고 있는데 국가 공식 자료인 보안사 자료가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 씨 등은 오월단체의 조작 증명에도 '광수'라는 이름으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보안사 자료와 비교한다면 더 이상 5·18을 왜곡할 수 없을 것이다.

국방부가 조만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공개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하지만 이왕이면 가급적 빨리 공개해 5·18 진상 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침 5·18특별법이 어제 분회의에서 통과돼 분위기도 좋다.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다. 국방부는 보안사의 5·18 자료를 조속해 공개해 5·18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상생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은 광주·전남 상생 협력의 발목을 잡아 온 해묵은 현안이다. 두 자치단체 간 민감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는 대표적 난제이기도 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달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이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인데 이에 따라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시도지사가 상생발전위원회에 앞서 비공식적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갖게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주요 현안마다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상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온 게 사실이 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와 맞물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전을 원하는 광주와 달리 사실상 이전 대상지인 전남에서는 주민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공동 협력 과제로 선정된 39건의 사업 중 안료된 사업은 15개뿐인데 나머지 24개 사업도 대부분 사·도가 힘을 모아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한전공대 설립,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사·도지사는 이번 만남에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서로 양보해 나주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해 더 시도의 부러움을 샀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도지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토티의 공격수 손흥민이 2019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다. 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혼자 세 골을 넣으며 우승 후보 맨시티를 격침시키고 팀의 준우승을 이끈 바 있다.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결승 진출을 이끌고 대회 골든볼의 주인공이 된 이강인도 21세 이하 선수들에 주는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 후보 10명에 선정 되었다. 이래저래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발롱도르는 '황금빛 공'이라는 뜻인데, 프랑스의 축구 전문지인 '프랑스 풋볼'(France Football)이 주관하는 올해의 축구 선수상이다. 1956년 제정된 이래 개인상 중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통한다. 지난해 수상자인 모드리치와 브라질의 네이마르,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포그바, 손흥민의 팀 동료 케인 등 세계적 스타들도 30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의 수상자는 통산 여섯 번째 수상을 노리는 메시와 호날두, 그리고 리버풀의 반 다이크 등 세 명이 겨루는 3파전 양상이다. 최고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메시

와 호날두의 승부는 이번 발롱도르 수상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호날두는 "발롱도르는 내게 노벨상과 같다"며 욕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스페인 언론은 "수상 자격을 갖춘 선수는 메시가 유일하다"며 설전에 가세했고, 미국 언론에서는 반다이크를 1순위로 예상하고 있다. FIFA 올해의 선수상은 메시가 차지했다.

수상자 선정은 195개 스포츠 전문기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한국도 1명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 투표자는 그해 개인과 팀은 물론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성적, 선수 자체의 재능, 스포츠맨십 등을 종합 평가해 1-5위를 선정한다. 이어 순위별 차등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점수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선수로는 2002년 설기현, 2005년 박지성이 50인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과연 이번이 손흥민이 한국인 최초로 발롱도르 투표에서 득점을 하고, 이강인이 코파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기자의 투표는 모레 3일 마감되며 수상자는 다음 달 2일 발표된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